

보편언어와 번역공간*

신정아·최용호
(한국외대)

1. 들어가며

조나단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 제3부 「라퓨타 여행」 5장에는 하나의 명사 목록으로 축소된 언어로 대화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다. 천공의 섬 라퓨타에서 지상으로 내려와 방문한 도시 라가도의 한 학교에서 주인공 걸리버는 자신들의 언어 체계를 향상시키기 위해 연구를 거듭하고 있는 교수들을 만난다. 이들은 말을 내뱉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허파가 손상되어 생명이 단축되는 현상을 막고자 언어를 명사들의 목록으로 환원하는 대단히 야심찬 작업에 착수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유명론자들이다. 유명론에 따르면, 언어는 명사들의 목록이고, 이 명사들은 개별적인 사물들 각각에 대응한다. 일단 명사들의 목록으로 환원된 언어는 이러한 이론적 전제에 따라 또 다시

* 이 연구는 2012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사물들의 목록으로 환원된다. 라퐁타의 라가도 언어 실험실에서 행해진 이러한 이중의 환원 덕분에 이곳의 주민들은 이제 남녀노소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구분 없이 공평하게 말을 내뱉는 수고조차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사물 보따리를 이고 다니며 말을 주고받는 대신 사물을 주고받으면 되니까 말이다.

이곳에 프랑스인과 한국인이 함께 거주한다고 가정해보자. 프랑스인이 ‘mouton’이라는 말을 하고자 자신의 보따리에서 양을 꺼내 한국인에게 보여준다. 이를 본 한국인이 머릿속에서 ‘양’이라는 단어 대신 ‘양고기’라는 단어를 떠올릴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하다. 여기서 번역의 문제는 간단히 해결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사실은 이곳에서는 번역이라는 문제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편이 옳을 것이다. 어쩌면 번역이라는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이처럼 이 문제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일일지도 모른다. 라퐁타의 라가도 실험실에서 만들어낸 언어 체계, 즉 ‘사물의 언어’는 『걸리버 여행기』의 저자가 강조하듯 생명 연장이라는 의학적인 꿈뿐만이 아니라 “보편언어”를 향한 서구 형이상학의 꿈을 이루기 위한 인류의 오랜 염원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Another great Advantage proposed by this Invention, was, that it would serve as an universal Language to be understood in all civilised Nations, whose goods and Utensils are generally of the same Kind, or really resembling, so that their Uses might easily be comprehended. (Jonathan Swift 1986: 185)

여기서 고안된 사물의 언어는 사용되는 물건이나 기구, 습관이나 관습까지도 서로 유사한 나라들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이해되고 소통될 수 있는 “보편언어”로서, 바벨 이전으로의 회귀, 말하자면 에덴에 거주했던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언어, 즉 호명의 언어를 완벽하게 복원하고자 하는 인류의 형이상학적 꿈을 실현시켜줄 가능성으로 제시된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타락 이후 인류가 그토록 바라왔던 신의 저주를 푸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불행히도 현실의 삶을 사는 우리는 양을 보따리에 싸고 다니는 ‘가벼운’ 수고 대신에 생명 단축의 위험을 무릅쓰고서 기꺼이 말을 내뱉는 ‘힘겨

운' 수고를 하며 살아간다. 라푼타 여행을 마치고 현실로 돌아온 프랑스인과 한국인이 다시 만났다고 하자. 이번에는 프랑스인이 눈앞에 양을 꺼내놓는 대신 'mouton'이라는 말을 내뱉었다. 프랑스어를 아는 대화 상대자인 한국인이 이 말을 듣고 이번에도 머릿속에서 '양'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다면, 이때 둘 사이의 의사소통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둘 사이의 의사소통이 두 차례 모두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두 번의 의사소통 상황이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번역의 관점에서 볼 때 라푼타에서의 상황과 현실의 상황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앞서 라푼타에서는 사물의 언어가 번역 자체를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어버린 반면, 지상의 현실에서는 그와 달리 번역의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양을 보고서 '양'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는 일과 'mouton'이라는 말을 듣고서 '양'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는 일은 엄연히 다른 것이다. 양이라는 사물은 '양'이라는 단어를 비교적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하지만 'mouton'이라는 말은 단지 하나의 사물만을 지시하지 않는다. 프랑스어 단어 'mouton'이 '양'과 '양고기'를 동시에 지시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mouton'이라는 프랑스어를 듣고 '양'으로 번역할 것인가 '양고기'로 번역할 것인가를 두고 고심하는 한국인 번역가의 고민 속에는 이 프랑스어 단어가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먼저 묻고 이어 이에 상응하는 적당한 한국어 표현이 무엇인지를 되물어야 하는 하나의 과제, 이른바 번역가의 과제가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제가 은연중에 전제하는 바는 프랑스어와 한국어가 비록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지향하는 바가 수렴하는 어느 한 지점, 즉 그곳에서 번역가의 물음이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들뢰즈의 용어를 빌려 표현하자면, '문제제기적인 장소'가 어딘가에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는 믿음이다. 언어의 다양성을 단순히 기술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들의 소통가능성, 즉 번역가능성을 문제 삼는 순간 보편성에 대한 물음이 제기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 논문에서 보편언어의 문제가 제기되고, 번역가의 물음이 되풀이되는 바로 이 지점, 즉 다시 들뢰즈의 용어를 빌리자면 차이가 반복되는 이 지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 지점은 번역가가 두 개의 언어, 두 개의 문화, 아니 보다 정확히 말해서 두 개의 기호계를 넘나들면서 번역가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끊임없이 물음을 던지는 자리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이 논문에서 번역가의 물음이 되풀이되고, 번역가의 과제가 수행되는 이 지점, 그리하여 중국에는 번역가의 입장을 드러내고, 번역의 스타일을 결정짓게 될 일종의 “발화의 자리”(Maria Tymoczko 2003: 183)를 ‘번역공간’으로 규정하고, 이 공간의 특성을 최근 우리가 수행한 번역 작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¹⁾ 이를 위해 본론 1장에서는 먼저 앞서 든 라푸타의 사물 언어와 조지 오웰의 『1984』에 등장하는 사교의 언어를 중심으로 보편언어와 번역가능성의 조건의 문제를 다룰 것이다. 이어지는 2장에서는 번역공간을 다루기에 앞서 번역 행위 가운데 이루어지는 번역가의 물음에 대해 구체적인 하나의 사례를 통해 간략히 언급하게 될 것이다. 번역가의 물음이 이루어지는 공간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3장에서는 알렉시스 누스가 루마니아 태생 독일 시인이자 번역가인 파울 첼란의 번역을 다룬 논문에서 간단하게 “번역의 비장소, 둘 사이”(le non-lieu, l'entre-deux de la traduction)(1996: 31)라고 언급한 바 있는 ‘번역공간’이라는 용어를 차용해 이를 경계, 비결정성, 역량의 차원에서 분석함으로써 개념화하는 동시에, 이 공간의 특성을 우리의 최근의 번역 작업-그레마스와 풍타니의 『정념의 기호학』과 장 라신의 『페드르와 이폴리트』-에서 가져온 몇몇 사례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앞장에서 정의된 번역공간을 바탕언어의 관점에서 다시 한 번 조명하면서 번역의 정치미학

1) ‘번역공간’에 대한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번역에 대한 기호학적 접근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번역 기호학적 관점에서 우리는 이전의 공동 작업의 결과물에서 번역을 ‘트랜스 세미오시스’(trans-semiosis) 현상 가운데 대표적인 예로 다룬 바 있으며, ‘번역공간’이라는 용어를 정의하고 이를 경계, 비결정성, 잠재성의 세 가지 속성으로 간략하게 설명한 바 있다. 트랜스 세미오시스 현상 일반에 관해서는 Shin et Choi, “On trans semiosis”, *Semiotica*, 출간 예정; 그 중 특별히 번역과 관련해서는 Shin et Choi, “La traduction comme trans-sémiosis: un essai de sémiotique pour une typologie de la traduction”, *Kodikas/Code Ars Semiotica*, volume 34(2011), No 1-2, Gunter Narr Verlag Tübingen을 참조할 것. 최근 들어 번역학 논의에서 ‘번역공간’과 유사한 개념들이 계속적으로 제안되고 있는데 예컨대 알렉시스 누스가 번역을 문턱/문지방(seuil)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이나 호미 바바의 ‘제 3의 공간’, 에밀리 엠티의 ‘번역 시대’ 등이 그것이다. ‘번역공간’ 개념의 독창성과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이러한 여타 개념들과의 비교 논의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본 논문의 논지 전개상 이를 다루지 않고 후속 연구로 미뤄두고자 한다.

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 글의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2. 보편언어의 실험실: 라푼타와 오세아니아

앞서 우리는 프랑스인과 한국인이 라푼타에서 만나는 상황을 가정하여 이들이 사물의 언어를 통해 소통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과연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프랑스인과 한국인 사이에 의사소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다시 말해 무엇이 프랑스어 표현과 한국어 표현 사이에서 번역가능성의 조건을 형성하는가?

라푼타에서는 사물 보따리가 그러한 조건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라푼타에서 두 사람의 성공적인 의사소통의 매개체는 다름 아닌 사물 보따리이다. 라푼타에서는 양이라는 하나의 사물이 프랑스어 ‘mouton’과 한국어 ‘양’ 사이에 등가를 성립시킴으로써 이들의 교환 가능성을 보장하는 일종의 사물-기호로서 작용한다. 한 마리의 양을 본래의 목적에 맞게-예컨대, 식용으로 혹은 양모나 양젖을 얻기 위해 사용할 때는-단순한 사물이겠지만,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사용하게 되면 그때 이 양은 하나의 사물-기호가 된다. 헤겔의 말대로 사물을 살해함으로써 언어가 출현한 것이라면, 사물-기호는 라푼타의 언어 실험실에서 다시 언어에 폭력을 가해 얻어진 기호로서의 사물이라고 할 수 있다. 어찌면 사물-기호는 살해된 사물이 유령의 형태로 되돌아온 것인지도 모른다. 이처럼 사물의 살해가 언어의 출현 조건이라고 한다면, 번역의 가능 조건은 다름 아닌 언어에 대한 폭력이 아닐까? 라푼타에서 프랑스어 ‘mouton’과 한국어 ‘양’ 사이에 완벽한 등가가 성립될 수 있었던 것은 주지하다시피 언어를 하나의 명사 목록, 더 나아가 하나의 사물 목록으로 환원시키는 작용 덕분이었다. 그런데 이때의 환원 작용은 의도야 무엇이었던 필연적으로 언어의 훼손과 삭제, 변형을 동반하는 것이고, 이는 언어에 가해진 폭력에 다름 아니다.

이제 보편언어에 대한 또 다른 실험의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오세아니아로 자리를 옮겨 보자. 조지 오웰은 자신의 소설 『1984』 「부록」에서 라푼타의 사물 보따리에 버금가는 대단히 경제적이고 폭력적인 오세아니아의 언어를 자세히

소개하는데, 이른바 뉴스피크(Newspeak)가 그것이다. 오세아니아의 언어학자들도 유명론자들이다. 라퓨타의 라카도에서 언어가 사물들의 목록으로 환원되었다면, 오세아니아에서는 철저하게 한정된 개념들의 목록으로 축소된다. 전자에서는 언어의 기능이 사물을 가리키는 데 있었다면, 후자에서는 사고를 표현하는 데 있다. 달리 말해 뉴스피크는 사고의 역량을 제한하기 위해 단어의 수를 줄일 목적으로 개발된 오캄의 날카로운 면도칼인 것이다. 예컨대 ‘bad’-뉴스피크가 영어를 기반으로 해서 창안된 언어임을 상기하자-라는 용어는 부정 접두사 ‘un’과 형용사 ‘good’의 복합어인 ‘ungood’으로 대체된다. 주지하다시피 이 면도칼의 용도는 불필요하게 자라날 가능성이 있는 사고의 싹을 애초에 도려내는 데 있기 때문에 뉴스피크 사전에서는 예를 들어 ‘freedom’, ‘democracy’처럼 반동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어휘들이 모두 제거되어 있다. 한 마디로 오세아니아의 뉴스피크는 사람들의 사고를 철저하게 통제하기 위해 고안된 빅브라더의 언어이다. 라퓨타의 언어학자들이 ‘하나의 단어에, 하나의 사물’이라는 테제에 호소하면서 생명 연장의 꿈을 이루고자 했다면, 오세아니아의 언어학자들은 ‘하나의 단어에, 하나의 개념’이라는 테제를 표방하면서 전체주의 체제에 충성스럽게 봉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두 테제는 모두 유명론적 테제이다. 그런데 이 테제는 앙투안 베르만이 번역학(traductologie, 번역론)과 대립되는 것으로 상징한 번역공학(traductique, 번역과학)이 오늘날 전제로 삼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베르만의 말대로 전자가 “체험 속에서 자신을 열고 (재)포착해 나가는”(2011: 20) 번역의 성찰 과정, 보다 넓게는 언어와 번역에 대한 철학적 성찰에 기반하고 있다면, 후자는 상술한 바와 같이 언어에 대한 폭력에 기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오세아니아에서도 프랑스인과 한국인이 만났다고 가정해보자. 이번에도 프랑스인이 먼저 뉴스피크로 반갑게 ‘sheep’이라는 말을 내뱉었다. 여기서 ‘sheep’은 하나의 평범한 단어가 아니라 이 단어와 관련된 불필요한 연상들이 모두 제거된 하나의 개념이다. 이를테면 유대교적 전통 속에서 양과 결부된 신성한 의미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이 순수한 개념어를 들은 한국인은 주저하지 않고 머릿속에서 ‘양’이라는 한국어 단어를 떠올렸다. 이번에도 프랑스인과 한국인 사이에 의사소통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흥미롭게도 여기서는 번역의 문제가 제기되자마자 곧바로 해결된

다. ‘mouton’이라는 평범한 프랑스어 단어의 경우 맥락에 따라 ‘양’으로도, ‘양고기’로도 번역이 가능하겠지만, ‘sheep’이라는 뉴스피크 단어는 라푼타의 사물-기호처럼 가급적 오직 한 가지 개념만을 표현해야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탈맥락적이다. 그렇기에 이 단어는 ‘양’으로만 번역되는 것이다. 실제로 영어로 양고기라는 뜻을 전하기 위해서는 ‘mutt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은 차치하고라도 말이다. 이렇게 볼 때, 프랑스어나 한국어를 뉴스피크로 번역한다는 것은 해당 언어에 개념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빅브라더가 통치하는 세계에서 필경 모든 언어들은 점차 뉴스피크의 어휘와 문법 구조를 닮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때 오세아니아의 뉴스피크를 예컨대 프랑스의 뉴스피크나 한국의 뉴스피크로 옮기는 과정은 분명 자동번역이 가능할 정도로 간단한 일이 될 것이다. 사실 라푼타에서처럼 오세아니아에서도 번역은 큰 문제거리가 되지 않는다. 이를테면 라푼타에서는 하나의 사물-기호가, 오세아니아에서는 하나의 개념이 언어 간에 등가를 확립시켜주는 데, 바로 이 완벽한 매개적 역할 덕분에 번역의 가능성이 확실히 보장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두 경우에서 번역을 가능하게 해주는 등가의 존재는 사실상 베르만이 번역공학이라 지칭한 범위 내에서만 온전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다양한 언어 사이에 존재하는 완벽한 등가란 베르만이 “보편적 번역가능성의 복음”(2011:19)이라는 용어를 통해 다소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처럼 모든 언어들 이 외형상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중국에는 하나의 보편적이고 동일한 의미를 공유하고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다. 그 경우 번역은 베르만이 보기에 번역의 본질을 구성하는 ‘문자’(lettre)에 대한 성찰을 배제하고, 번역가의 입장에서 새로운 해석을 내릴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봉쇄함으로써 역설적으로 번역공학이 아닌 번역학의 대상으로서의 번역의 가능성을 차단하게 된다. 베르만은 일반적으로 등가의 원칙이 별 무리 없이 적용될 것이라 여겨지는 속담의 경우를 예로 들어 진정한 번역의 가능성을 불가능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역동적” 등가)의 번역가능성을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앞선 속담의 사례는 사소해보일 수도 있으나 지극히 상징적이다. 이는 등가라는 문제를 전체를 끌어들인다. 왜냐하면 등가어를 찾는 작업은 단지

불변의 의미를 상징하거나, 서로 다른 언어들 속에서 다양한 속담들로 표현되는 하나의 이념성(idéalité)을 상징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등가어를 찾는 것은 원문 속담에 담긴 낯설(étrangeté), 즉 독일 속담에 등장하는 “아침 시간은 입에 금을 품는다”의 낯설을 번역어 안으로 들여오기를 거부하는 것이며, 번역어가 ‘번 것의 거처’가 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며, 결국 프랑스어 사용자 입장에서 보자면 [낯설]을 프랑스어화하는 것이다. 이는 해묵은 전통이다. 이런 학풍에서 교육받은 번역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번역이란 의미의 전달이며, 동시에 이 의미를 더 명확히 만드는 것이며, 낯선 언어의 낯설에 내재된 불명료성을 의미로부터 털어내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거칠게 말하자면 이것이 바로 나이다의 유명한 ‘역동적 등가’이다.(2011: 18-19)

앞서 살펴보았듯 라퓨타와 오세아니아에서 이루어지는 번역이 둘 다 번역학의 문제라기보다 번역공학의 문제로 환원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그런데 이러한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두 경우에는 차이점도 존재한다. 그 차이는 번역을 가능하게 하는 완벽한 등가물에도 불구하고 번역의 순간 번역가에게 일말의 해석 가능성이 주어지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이를테면 하나의 사물을 주고받으며 대화하는 라퓨타의 주민들은 사물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고유한 사유를 펼쳐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환언하자면 개인마다 양이라는 사물에 대한 체험이 다르다고 할 때 사람들 사이에 사물-기호에 대한 해석에서 다소간의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라퓨타에서 유대인은 양을 보고 희생제의를 떠올릴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라퓨타에서는 번역이라는 문제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른바 해석의 갈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게 된다. 반면에, 뉴스피크를 구사하는 오세아니아의 인민들은 자신의 경험이 아무리 다양하다고 해도 이를 철저하게 통제된 하나의 개념을 통해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획일적인 사고를 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는 해석가능성이라는 문제 자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번역의 문제가 자동번역의 형태로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해석의 갈등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오세아니아의 텍스트들만이 사실은 자동번역이 가능한 텍스트들이다. 이를 야콥슨의 용어를 빌려 표현하자면 라퓨타의 사물 보따리가 언어 간 번역(traduction

interlinguistique)의 문제를 무력화시키는데 비해, 오세아니아의 뉴스피크는 언어 내적 번역(traduction intralinguistique)의 문제를 무력화시킨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전체주의 사회에 좀 더 적합한 언어는 전자라기보다는 후자이다.

3. 번역가의 과제

이제 번역공학에서 번역학으로 논의의 초점을 옮겨보자. 베르만에 따르면 번역학은 이론과 실무라는 과학적이고 방법론적인 영역이 아니라 성찰과 체험이라는 주관적이고 철학적인 영역에 속한다. 말하자면 번역학에 대한 논의는 번역가로서의 체험 속에서 번역 행위에 대한 진지하고 철학적인 사유가 어우러질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베르만의 주장처럼 구체적인 번역 체험을 바탕으로 번역 행위에 대해 진지하게 사유하는 일은 우리가 보기에 비단 번역학 논의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번역가에게 부과되는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실제로 번역가의 과제란 기본적으로 번역 행위를 행하는 과정에서 매순간 물음을 던지고, 주어진 여건과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 위해 애써야 함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번역가가 두 언어, 두 문화, 두 기호계 사이에 위치하면서 불편부당하게 서로를 매개하고 중개하는 중립적인 역할에 머물지 않고 번역 행위와 과정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고유한 발화를 행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번역가가 번역 행위 중에 스스로에게 매순간 던졌던 물음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최선의 선택들의 총합 덕분에 가능한 일일 것이다. 우리가 다른 논문에서 어떤 번역가의 전략 혹은 번역가의 스타일을 논하기 위해서 번역의 결과물을 번역가가 번역 과정 중에 행한 선택의 총합, 달리 말하면 번역가가 스스로에게 던진 물음들에 대해 매순간 고심하며 찾아낸 일종의 답변들의 결과로 간주했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Shin et Choi 2011:35-36)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것이 소위 번역가의 과제라는 거창하고 광대한 주제에 관한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논의가 아님을 미리 밝혀둘 필요가 있겠다. 우리는 이 장에서 번역가가 번역 행위 가운데 맞닥뜨리게 되는 물음의 양상을 한 가지 구체적인 번역의 사례를 통해 간략히 예시하고자 하는데, 이는 다음 장에서 증점적으로 살펴보게 될 번역공간으로 논의를 이끌

여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사례는 그레마스와 폰타뉴가 공저한 『정념의 기호학』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sens’라는 용어를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먼저 우리가 고려하고자 하는 기호학이 좁게는 『정념의 기호학』이고 넓게는 이 책을 기점으로 중대한 전환기를 맞게 된 소위 파리학파의 기호학임을 밝혀두자.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 앞서 라퐁타와 오세아니아의 예로 다시 돌아가 보자. 프랑스인과 만난 한국인 번역가가 ‘mouton’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그는 자연스럽게 이 단어가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자문하게 된다. 라퐁타에서는 이 단어의 의미가 그것이 가리키는 지시대상으로서의 양, 즉 하나의 사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의미론에서는 이러한 의미를 외연(extension)이라고 부른다. 오세아니아에서는 이 단어의 의미가 양이라고 하는 하나의 잘 정의된 개념으로 간주된다. 의미론에서는 이러한 의미를 내포(intension)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처럼 단순히 ‘mouton’의 의미를 묻는 것과는 달리 ‘sens’라는 용어를 번역하기 위해 그 의미를 묻는 것은 일종의 동어반복이지 않은가?

문제를 달리 제기해보자. 라퐁타에서 의미가 지시대상으로서의 사물이라면 ‘사물’이라는 용어 자체는 아무 것도 지시하지 않는 텅 빈 용어에 지나지 않는 데, 역설적으로 바로 이 텅 빈 기호에 기초해서 라퐁타의 의미론이 구축된다. 한편 오세아니아에서 의미가 하나의 개념이라면, 이 ‘개념’이라는 용어 자체는 아무런 개념도 담고 있지 않은 텅 빈 기호에 지나지 않은 것인데, 마찬가지로 바로 이 텅 빈 기호에 기초해서 오세아니아의 의미론이 구축되는 것이다. 이를테면 라퐁타에서 사물의 ‘의미’를 묻거나 오세아니아에서 개념의 ‘의미’를 묻는 것은 근본적으로 무의미하다는 말이다. 흥미롭게도 이 무의미가 이 두 유포아의 상징계를 떠받치고 있는 것이다. 무의미란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지만 모든 의미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라캉의 용어를 빌리자면 그것은 다름 아닌 ‘아버지의 이름’이다.

그렇다면 프랑스어 ‘sens’를 번역할 때 이 ‘sens’의 의미를 자문하는 번역가의 물음 역시 무의미한 것인가? 먼저, 이 물음이 단순히 ‘의미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치환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지적하자. 이 질문에 대한 언어학적인 답변은 상술한 바와 같이 외연이나 내포 중 하나이다. 외연의 외연이나 내포의 내포를 묻는 물음은 일종의 동어반복으로 무의미한 것이지만 ‘sens’의 의미를

묻는 번역가의 물음은 단어반복이 아니라 이를테면 ‘sens’의 비-의미에 접근하고자 함이다. 요컨대 번역가가 ‘sens’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를 두고 ‘sens’가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묻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러한 비-의미의 공간과의 마주침이라고 할 수 있다. 무슨 말인가?

다음의 문구는 『정념의 기호학』 「서론」에서 발췌한 것이다.

Le faire du sujet narratif se trouve ainsi réduit, à un niveau plus profond, au concept de transformation, c'est-à-dire, vidée de sens, produisant une rupture entre deux états. Le déroulement narratif peut alors être justifiable comme une segmentation d'états qui se définissent uniquement par leur «transformabilité». L'horizon du sens qui se profile derrière une telle interprétation est celui du monde conçu comme discontinu, ce qui correspond d'ailleurs, au niveau épistémologique, à la mise en place du concept indéfinissable d'«articulation», première condition pour pouvoir parler du sens en tant que signification. (1991: 8)

서사 주체의 행위는 그리하여 보다 심층적인 층위에서 변형의 개념, 말하자면 의미가 결여되고, 두 상태 사이의 단절을 일으키는 일종의 추상적 점 팔성의 양상을 띠게 된다. 서사적 전개는 오로지 ‘변형가능성’으로만 스스로를 규정하는 상태들의 분절로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런 해석 뒤편에서 펼쳐지는 의미 지평은 불연속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세계의 의미 지평인데, 이런 사실은 의미작용으로서의 의미를 논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인 ‘분절’이라는 정의하기 어려운 개념을 인식론적 층위에 자리 잡게 한다.

위의 인용문에서 ‘sens’라는 용어는 ‘sens’, ‘horizon du sens’, ‘sens en tant que signification’이라는 여러 표현 속에 등장한다. 첫 번째 ‘sens’의 경우 ‘의미’로 번역하는 데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두 번째 ‘horizon du sens’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문제는 세 번째 ‘sens’이다. 이를 ‘의미’로 번역할 경우 ‘signification’의 대역어를 찾는 데 어려움이 발생한다. 국내 기호학 번역 담론의 관행에서 ‘signification’은 그동안 주로 ‘의미’로 번역되어 왔다. 그렇다면 위의 마지막 문구는 ‘의미로서의 의미’라고 번역해야 할 터인데, 이는 단어반복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서 문제는 프랑스어에는 ‘sens’와 ‘signification’이라는 두

용어가 존재하는 데 비해, 한국어에는 ‘의미’라는 하나의 용어밖에 없다고 하는 대단히 평범한 사실이다.

주지하다시피 파리학파의 기호학에서 기호학은 ‘signification’ 이론으로 정의되는데, 여기서 ‘signification’이란 소쉬르에 기원을 둔 구조언어학의 원리에 따라 정의된 하나의 이론적인 개념이다. 반면 ‘sens’는 일종의 선이론적인 개념으로서만 사용되어 왔다. 그레마스가 펴낸 *Du sens*에서 ‘sens’는 구조주의 개념이 아니라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의미를 뜻한다. 위에서도 이러한 점이 잘 드러나 있는 듯하다. 말하자면 ‘signification’과 ‘sens’는 기호학 담론에서 하나의 계열을 형성하는데, ‘signification’은 그 중심에, ‘sens’는 그 주변에 위치한다. 그런데 『정념의 기호학』 이후 이러한 위계에 일종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책에서 ‘signification’은 주로 ‘structure élémentaire de la signification’(의미의 기본구조)라는 기호-서사 층위의 심층구조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데 비해, ‘sens’는 ‘effet du sens’, ‘horizon du sens’, ‘ébranlement du sens’, ‘sens de la vie’, ‘image du sens’, ‘passion-effet du sens’ 등의 다양한 표현에서 그 모습을 드러낸다. 이들은 모두 잘 정의된 하나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정념’이라는 새로운 기호학적 대상을 도입하기 위한 일종의 ‘사유의 이미지’(들뢰즈)이다. 『정념의 기호학』 1장의 제목이 「감각하기에서 인식하기로 *Du sentir au connaître*」인데, ‘인식하기(*connaître*)’가 ‘signification’에 기초한 불연속적 패러다임에 속한 것이라고 할 때, 연속적 패러다임에 해당하는 ‘감각하기(*sentir*)’는 차츰 ‘sens’와 이론적인 공모 관계에 처하게 된다. 행위기호학과 정념기호학의 통합을 시도한 『담화 기호학』에서는 마침내 ‘sens’가 ‘signification’을 밀어내고 기호학의 중핵으로 부상한다. 이때 ‘sens’는 더 이상 사유의 이미지가 아니라 잘 정의된 하나의 개념이다. 이처럼 기호학적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sens’와 ‘signification’이라는 계열에 일종의 자리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두 용어를 올바르게 번역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하지만 문제는 앞서도 언급했듯이 한국어에 이 두 용어의 차이를 올바르게 반영해줄 적당한 용어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번역 행위 중에 있는 번역가의 물음은 단순히 두 언어 사이의 의미의 등가를 넘어 번역의 대상이 되는 단어, 표현, 텍스트들이 출발 기호계에서 지닌 역사적, 사회적, 이론적 의

미는 물론 그것이 여러 가지 차원에서 도착 기호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과정 등을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달리 말하자면, 번역한다는 것은 한 언어의 단어를 등가 관계에 놓여 있는 다른 한 언어의 단어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출발 기호계와 도착 기호계에서 그 단어가 지니는 지위, 맥락, 함의 등을 고려하면서 무엇보다 하나의 계열을 다른 하나의 계열과 마주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마주침이 발생하는 공간이 바로 우리가 다음 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하는 번역공간이다.

4. 번역공간

우리가 번역가의 물음이 되풀이되는 장소로 규정하는 번역공간은 실체를 지니고 항구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적 혹은 상상적 공간이 아니다. 번역가는 출발 텍스트를 도착 텍스트로 만드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경계를 넘나든다. 이때 번역가가 넘나드는 것은 단순히 두 개의 언어 혹은 두 개의 문화가 아니라 두 개의 서로 다른 기호계이다. 번역공간이란 번역가가 번역을 위해 한 기호계에서 다른 기호계로 넘어가는 순간 펼쳐진다. 달리 말하자면 번역공간은 번역가가 적절한 번역어 혹은 표현을 찾기 위해 물음을 던지고 고민하는 순간, 그러니까 번역가의 고민이 아직까지 하나의 번역어로 확정되지 않은 순간, 즉 번역가가 번역에 대한 물음을 던지면서 출발 기호계를 떠나 확정된 번역어를 가지고 도착 기호계로 진입하기 이전에 번역가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지점을 형상화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장에서 이 공간의 속성을 경계의 공간, 비결정성의 공간, 역량의 공간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간략하게 기술하고자 한다.

4.1. 경계의 공간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 먼저 중심과 주변으로 위계화된 하나의 계열을 로트만의 용어를 빌려 기호계라고 명명하자. 하나의 기호계 안에는 항상 일정한 해석을 유도하는 세미오시스가 작동한다. 계속해서 앞서 언급했던 ‘sens’의 번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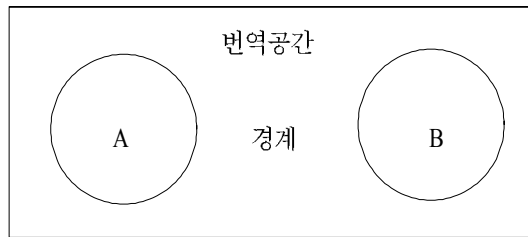
사례를 통해 설명해보자.

한편에는 ‘sens’와 ‘signification’의 계열이, 다른 한편에는 ‘의미’라는 계열이 존재한다. 이때 첫 번째 계열을 {signification, sens}로, 두 번째 계열을 {의미}로 표기할 수 있겠다. 번역가가 이 두 계열을 맞세우는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는 두 번째 계열에 대한 하나의 물음이 떠오른다. 이를 {의미, ?}라고 표기해보자. 바로 이 ‘?’라는 상징이 만들어지는 순간 두 계열 사이에 물음의 공간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이 상징은 한국어 계열뿐만 아니라 프랑스어 계열에도 영향을 미쳐 번역가의 머리 속에 ‘sens’의 의미에 대한 물음, 즉 ‘?-sens’에 대한 물음을 유도한다. 우리가 앞에서 비-의미의 공간이라고 명명한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이 ‘?-sens’의 공간이다. 하이데거는 이 물음의 공간을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번역을 거치면서 사유의 작업은 다른 언어의 정신 속으로 옮겨지게 되며, 이 과정에서 불가피한 변형을 겪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변형은 유익한 것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물음이 가진 근본적인 위치가 새로운 조명 하에 드러나기 때문이다.(베르만 2011: 78-9)

두 계열, 두 기호계가 마주칠 때 번역가의 물음이 되풀이되는, 하이데거가 위에서 언급한 “물음이 가진 근본적인 위치”, 즉 하나의 경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때 경계란 무엇인가?

지도상에서 경계로 표시되는 지역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오직 여행가가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건너갈 때에만 열리게 되는 순수하게 실천적인 공간이다. 마찬가지로 언어지도(linguistic atlas) 상에서 경계라는 공간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번역가가 번역 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잠시 드러날 뿐이다. 이를테면 프랑스어와 한국어 사이에 경계란 오직 번역가가 임의로 프랑스어에서 한국어로 또는 한국어에서 프랑스어로 넘나들 때에만 열리게 되는 것일 뿐 처음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 경계의 ‘위치’를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표현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경계의 공간)

기호계 A와 기호계 B 사이를 오가는 과정에서 경계의 공간이 생성된다. 하나의 경계를 넘나든다는 것은 번역가가 물음을 되풀이한다는 말 외에 다른 아니다. 이를테면 번역가는 {signification, sens}라는 계열에서 {의미, ?}라는 계열로, 다시 {의미, ?}라는 계열에서 {signification, sens}라는 계열로 오고가면서 가장 적합한 번역어를 찾기 위해 계속해서 물음을 던지는 것이다. 그런데 경계를 넘나들며 마주치게 되는 두 계열은 비단 단어의 차원에만 머무르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최근에 우리가 번역한 라신의 고전 비극 작품 『페드르와 이폴리트』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Madame, Princesse, Seigneur 같은 호칭들을 번역할 때 번역가는 주어진 하나의 단어의 의미를 묻는 것을 넘어서서 그 단어들이 출발 기호계와 도착 기호계의 궁중문화와 예법의 테두리에서 어떻게 작동하게 될 지를 고려해야만 한다. 우리는 관례적으로 사극이나 역사 소설 등을 통해 과거 왕조 시대, 이를테면 조선시대에 왕이 아내를 부를 때 중전이라는 호칭을 사용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17세기 프랑스의 비극 작가가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신화를 극화한 작품에서 테제 왕이 자신의 아내 페드르를 중전이라 부른다고 가정해보자. 그러한 번역은 분명 원 텍스트에서 의도하지 않았던 효과를 번역 텍스트에서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번역가는 프랑스, 아니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궁중 문화의 계열과 한국의 왕조 문화의 계열을 서로 부딪치게 하고 둘 사이를 넘나들면서 물음을 던지게 된다. 우리가 보기에 경계의 공간으로서 번역공간은 이처럼 번역가가 서로 다른 두 계열 사이를 끊임없이 오고 가는 과정 속에서 열리게 되는 것으로, 이는 말하자면 두 계열에 동시에 속하면서도 동시에 속하지 않는 순수한 물음의 공간

에 다름 아닌 것이다. 요컨대 물음의 공간으로서 번역공간은 오직 번역가의 실천 속에 존재하는 경계의 공간이다.

4.2. 비결정성의 공간

다시 앞서 3장에서 인용했던 『정념의 기호학』 「서론」의 구절로 돌아가 보자. 『정념의 기호학』의 역자들은 ‘sens’와 ‘signification’ 번역과 관련해 이 인용문에 등장하는 ‘sens en tant que signification’이라는 표현에 한해 ‘signification’을 ‘의미작용’으로 번역하였고, 그 외의 다른 곳에서는 모두 ‘의미’로 번역하였다. 한편, ‘effet du sens’, ‘horizon du sens’, ‘sens de la vie’, ‘image du sens’ 등의 표현 속에 등장하는 ‘sens’의 경우에도 모두 ‘의미’로 번역하였다.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번역에서는 ‘signification’과 ‘sens’ 사이의 이론적인 위계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결국 한국어 대역어 ‘의미’에는 이론적 개념으로서의 ‘signification’과 선이론적 개념으로서의 ‘sens’가 혼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를 구별해내는 것은 철저히 독자의 몫으로 남겨진다. 계속해서 『정념의 기호학』 29쪽에 보면 다음의 문구가 등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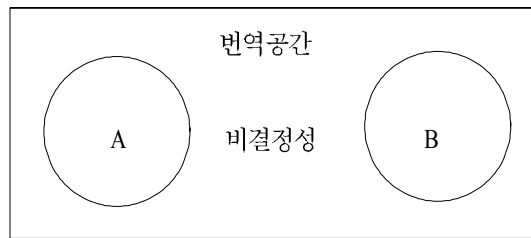
D'une part, le premier ébranlement du sens ne suffit pas encore à engendrer la signification. (p.29)

앞의 인용문에서와 같이 여기서도 ‘sens’를 ‘의미’로, ‘signification’을 ‘의미작용’으로 번역해야 할 것인가? 『정념의 기호학』에서 ‘sens’가 ‘signifier’보다는 ‘sentir’와 관련되어 있음을 상기하고, 위의 문구가 등장하는 맥락을 참조해보면, 여기서 ‘sens’는 ‘감각’에 가까운 것임을 알 수 있다. 이후 『담화기호학』에서는 ‘sens’가 본격적으로 감각의 관점에서 이론화된다. 따라서 위의 문구는 다음과 같이 번역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감각의 첫 동요는 의미를 산출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만약 이러한 번역이 타당하다고 한다면, 『정념의 기호학』에 등장하는 ‘sens’에는 ‘signification’에는 없는 /감각성/이라는 의소가 담겨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

며, ‘모든 의미는 감각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사유되지 않은 하나의 명제가 일종의 사유의 이미지로서 선이론적 맥락을 구축한다고 간주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sens’의 복합표현에 등장하는 모든 ‘sens’를 획일적으로 ‘감각’으로 번역할 경우에 ‘삶의 감각’(sens de la vie)이라는 어색한 표현이 등장하게 된다. 사실 이 복합표현에서 ‘sens’는 ‘sens unique’(일방통행)이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방향성/ 또는 /목적성/이라는 의소가 담겨있는데, ‘감각’이라는 대역에는 이러한 의소가 부재한다. 뿐만 아니라 ‘감각’이라는 한국어 대역어에 상응하는 프랑스어는 ‘sens’라기보다는 ‘sensation’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번역가는 어쩔 수 없이 ‘sens’를 때로는 ‘의미’로, 때로는 ‘감각’으로, 때로는 잘 정의된 개념으로, 때로는 사유의 이미지로 번역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결과 출발 기호계의 세미오시스와 도착 기호계의 세미오시스가 동시에 교란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A와 B 두 기호계 사이를 넘나든다는 것은 이처럼 무엇보다도 이 두 기호계의 세미오시스를 문제적인 것으로 간주한다는 말이다. 번역가의 물음이 되풀이되는 경계는 하나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의 상태, 즉 기존의 세미오시스가 모두 중단되는 의미론적으로 비결정적인 예외 상태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비결정성의 공간)

하나의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말하자면 {signification, sens}라는 계열의 위계가 중화되는 동시에 {의미, ?-의미}라는 계열이 다의어적으로 재구조화되는, 다시 말해 두 기호계의 세미오시스가 동시에 작동 중지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처럼 번역공간에서 출발어의 기호계는 자신의 위계를 더 이상 강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중화되고, 도착어의 기호계는 기존의 질서를 재편해야 한다는

점에서 재구조화된다. 달리 말해 이 두 기호계가 모두 동시에 물음에 부처지는 것이다. 번역한다는 것은 출발어에서 도착어로 단순히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출발어 기호계와 도착어 기호계를 동시에 부정함으로써 비결정성의 공간을 여는 몸짓이다. 이 공간은 번역가가 아무런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일종의 번역불가능성 앞에 호명되는 순간에 열리게 된다. 이를테면 ‘sens en tant que signification’을 도대체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라는 질문 말이다. 바로 이 비결정성의 공간이 ‘sens’의 무의미가 아니라 비-의미가 드러나는 지점이다. 번역공간은 번역가능성의 공간도 번역불가능성의 공간도 아닌 모든 의미의 비-의미, 즉 ?-의미가 우글거리는 한계의 공간이다. 모든 번역은 바로 이러한 비결정성이라는 어둠의 순간을 통과해야 한다. 베르만은 이 공간을 총체화를 거부한다는 의미에서 바벨적이라고 묘사한다.

이는 다음의 사실을 의미한다. 번역학의 포부가 번역에 대한 일반 이론을 정립하는 데 있지 않다면 (오히려 번역학은 그러한 이론이 존재 불가능함을 증명해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번역의 공간은 바벨적인 모습을 띠고 있으며 따라서 모든 총체화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번역학은 번역에 실재하는 다양한 ‘형식들’ 전체를 성찰하는 것을 그 포부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베르만 2011: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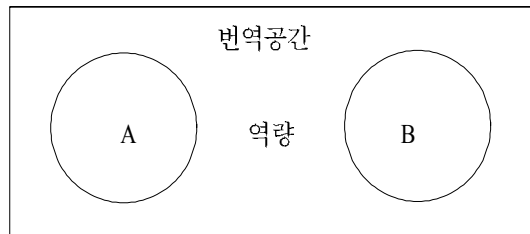
라푼타와 오세아니아가 하나의 상징계 안에 갇힌 폐쇄적인 세미오시스의 공간이라면, 바벨은 기존의 세미오시스가 갑자기 작동 중단되어 의미론적으로 비결정적인 예외상태로 진입하는 공간인 것이다.

4.3. 역량의 공간

번역공간 속에서 두 기호계를 떠받치고 있던 기존 세미오시스의 효력이 동시에 중지되면서 하나의 실험 무대가 펼쳐지는데, 바로 이곳에서 감추어져 있던 세미오시스의 역량이 드러난다. 경계의 공간이 실천적이고 비결정성의 공간이 의미론적이라면 역량의 실험무대는 미학적이다.

베르만은 번역공간의 속성을 윤리적이고 시학적이며 사유적인 것으로 정의한다. 미학적인 번역은 번역의 분석문이 가려내야 하는 하이퍼텍스트적인 것으

로 비판의 대상이 된다. 베르만에 따르면 “번역을 시니피에의 전달이나 미학적 변주로 정의하는 것은 더 근원적인 어떤 것을 은폐시키는” 것으로 “그 결과 번역은 고유의 공간이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베르만 2011:58) 여기서 베르만이 말하고자 하는 미학이란 평범한 의미에서의 ‘아름다움의 학’으로 단순히 원작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 우리가 여기서 역량의 공간을 미학적이라 칭할 때의 미학이란 『판단력 비판』에서 칸트가 말하고자 했던 미학을 참조한 것으로 보다 근본적인 것인바, 감성의 대상으로부터도 지성의 지배로부터도 벗어난 하나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인식능력들 간의 자유로운 일치에 관한 것이다. 랑시에르는 『미학의 정치』에서 이른바 이중부정으로 열리게 되는 이 공간에서 일종의 유희가 벌어짐에 주목하고, 그로부터 새로운 역량에 대한 실험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한다. 출발 기호계의 세미오시스와 도착 기호계의 세미오시스가 동시에 잠정 중단되는 번역공간이 바로 이러한 실험 무대라는 점에서 미학적이라고 할 수 있다. 들뢰즈의 말대로 모든 대답을 침묵하게 하는 물음이 가장 좋은 물음이라고 한다면 모든 번역을 다시 문제로 삼을 수 있는 번역공간은 순수한 역량의 실험무대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 역량의 공간)

다시 앞의 인용문으로 돌아가 새로운 번역의 가능성을 살펴보자. 우리는 앞서의 인용문에서 오직 ‘sens en tant que signification’이라는 표현에 한해 ‘signification’을 ‘의미작용’으로 번역하였음을 밝혔다. 그런데 이 번역이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난 것이긴 하지만, 실제로 기호-서사 층위의 심층에 위치하는 논리의미론적인 관계로서의 ‘signification’을 ‘의미작용’이라는 기술적인 용어로 번역해도 큰 무리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오히려 ‘-tion’이라는 어미에는 ‘작용’

이라는 역동성이 반영되어 있어 ‘signification’을 아예 ‘의미작용’으로 번역할 경우, ‘sens’를 때로는 ‘의미’로, 때로는 ‘감각’으로 번역하는 대신에 모두 ‘의미’로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경우 또 다른 장점이 있을 수 있다. ‘의미’(意味)라는 한국어 표현은 뜻을 나타내는 의(意)와 맛을 나타내는 미(味)가 합쳐진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미’는 하나의 감각작용이다. 다시 말해 ‘sens’를 ‘의미’로 번역할 경우 ‘sens’에 담겨 있는 ‘의’(意)와 ‘미’(味)를 모두 표현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다. 게다가 ‘의미작용’이라는 용어가 이론적인데 비해 ‘의미’라는 용어는 일상적이어서 선이론적 개념인 사유의 이미지로서도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signification, sens}라는 출발 기호계 속에 담겨 있는 의미론적인 강도(intensité)가 {의미작용, 의미}라는 도착 기호계 속에서 그대로 전이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번역한다는 것이 필연적으로 무엇인가가 한 쪽에서 다른 한 쪽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함의한다면 그것은 의미도 문자도 아니다. 그것은 텍스트의 강도이다. 오직 강도만이 하나의 계열에서 다른 계열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번역에서 강도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보기에 강도는 예코가 말하듯 언어적인 가역성의 충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예컨대 “묘사의 리듬을 가역적으로 만들거나”(2010:99) 운율에 집중함으로써 “텍스트가 독자에게 유발하고자 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유발”(2010:115)하는 것과 관련될 수 있을 듯하다. 우리의 경험을 예로 들자면, 라신의 『페드르와 이폴리트』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번역가의 근본적인 물음이 머물렀던 지점은 단순히 프랑스어 문장을 한국어로 정확하게 옮기는 것이 아니라 단어와 문장과 인물과 상황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희곡 작품이라는 구조물 속에 존재하는 어떤 리듬, 어떤 강도를 어떻게 옮겨낼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이때 관건은 다름 아니라 사랑이든 질투든 분노든 온몸을 휘감는 정념에 사로잡힌 주인공들 각자가 극이 진행되어가면서 매순간 느꼈어야 했을 감정의 강도를, 그 안에 내재하는 리듬과 호흡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느냐의 문제가 된다. 예컨대 번역가는 알렉상드랭 시구의 운율을 맞추기 위해 많은 부분 도치되어 있는 프랑스어 문장 구조를 그대로 따를 수도, 파괴할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도착어인 한국어에서 자연스럽게 읽히는 주어 반복 혹은 구두점의 빈번한 사용 등을 행할 수도 피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앞서 우리가 지적한 대로 번역가의 물음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번역공간은

실제로 출발 기호계에도 도착 기호계에도 속하지 않은 곳으로 둘 사이를 왕래 하는 가운데 새로운 실험이 행해지고, 자유로운 유희가 펼쳐지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번역가의 과제가 끊임없는 물음을 통해 동일한 효과를 유발하는 적절한 강도를 전달하고 옮겨내야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기존의 번역학 논의에서 흔히 극복할 수 없는 대립쌍으로 나타나는 직역/의역, 충실성/가독성, 자국어/이국화 등의 구분을 넘어서는 새로운 논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강도 개념에 대한 보다 정치하고 심도 있는 후속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바탕언어—번역의 정치미학을 위하여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의 언어를 다른 하나의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번역가가 끊임없이 묻고 되묻는 물음의 공간은 경계의 공간이자 비결정성의 공간이고 역량의 공간이다. 이 공간은 사물의 세계로도, 개념의 세계로도 완벽하게 채워지지 않는다. 사물이나 개념은 모두 언어외적인 요소들이다. 이들이 등가의 기준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번역을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가능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번역과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테제가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 번역가능성의 테제와 번역불가능성의 테제가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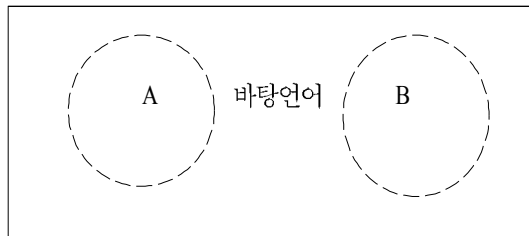
번역가능성의 테제는 언어 간에 등가를 확정해줄 수 있는 공통의 무엇이 존재하리라는 하나의 전제에 호소한다. 여기서 공통의 무엇이란 사물 보따리나 뉴스피크와 같은 제 3의 언어, 즉 보편언어를 가리킨다. 보편주의에 기댄 번역가능성의 테제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역설적으로 번역 자체의 소멸, 말하자면 바벨 이전으로의 회귀를 정당화할 수 있는 한에서만 옹호될 수 있다. 번역이 가능하되 궁극적으로 번역이 불필요해질 때까지 가능해야 한다는 말이다. 자기 꼬리를 먹고 사는 도마뱀처럼. 보편언어의 기획이 지향하는 바는 바로 이것이다. 이와 달리 번역불가능성의 테제는 실제로 번역이 행해지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과는 무관하게 메타적이거나 보편적인 제 3의 언어가 존재한다는 가능성 자체를 부정한다. 리외르는 언어적 환대라는 개념으로 이 두 테제를 변증법적으로 극복하고자 시도한다. 그는 한편으로 벤야민의 순수언어와 같은 보편언어

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논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번역이 실제로 행해지고 있다는 경험적인 사실에 비추어 번역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데리다 식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에 따르면 번역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보편언어나 순수언어 또는 메타언어와 같은 제 3의 언어를 매개로 해서 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가 내세우는 환대라는 개념은 번역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지닌 윤리적 차원을 가리킨다. 이 차원에서 타자의 언어는 동화의 대상-번역가능성의 테제-도, 몰이해의 대상-번역불가능성의 테제-도 아니고 환대의 대상이다. 번역학이 윤리학과 만나는 지점에서 타자의 문제가 제기된다. 물론 타자의 언어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얼굴을 하고 있다면 이 언어를 환대해야 한다는 리콤프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기보다는 감동적이다. 하지만 폭군의 얼굴을 하고 있다면 감동적이라기보다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오늘날 번역학에서 보편성의 문제는 추방된 듯하다. 번역의 불가능성의 테제를 반박하기 위해 이제 환대나 시련과 같은 타자의 윤리학박에 남겨진 선택지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번역이 실제로 이곳저곳에서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번역이 가능하다고 하는 주장 못지않게 번역가가 이런저런 단어와 마주치면서 때로는 번역이 참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는 낭패감을 느끼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경험적 사실이다. 우리가 보기에 바로 이 불가능의 고백 또는 불가능과의 마주침에서 번역가의 물음이 시작되는 것이다. 리콤프는 번역가능성과 보편성의 외적인 연결고리를 끊어냄으로써 불가능으로서의 타자를 오직 윤리적인 차원에서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환대란 번역가능성이 보편성에 의해 보증되지 않음으로 인해 번역불가능성을 경험적으로 극복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요청되는 윤리이다.

그런데 리콤프와는 정반대로, 보편성의 문제를 번역불가능성이라는 테제의 맥락 속에 위치시킴으로써 번역가능성의 길을 새롭게 열 수는 없는 것일까? 사실 데리다의 해체적 번역학이 나아가는 길이 바로 이러한 길이다. 데리다의 주장은 단순히 번역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번역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선험적으로 번역불가능성의 지점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달리 말해 번역을 가능하게 하는 번역불가능성의 지점이 존재한다는 말이다. 번역공간이란 바로 이 불가능의 지점이다.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보편성의 테제를 다시 도입하고자 한다. 여기서 보편성은 사물 보따리나 뉴스피크와 같이 이른바 제 3

의 언어가 지니고 있는 초월적 보편성이 아니다. 그것은 내재적 보편성이어야 한다. 내재면에 존재하는 보편언어를 바탕언어라고 부르도록 하자. 바탕언어는 모든 언어의 공통점, 이를테면 A언어와 B언어의 공통점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A언어도 B언어도 아닌 언어이다. 이는 순수한 바벨의 상태에 놓여 있는 차이 그 자체로서의 언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4. 바탕언어)

바탕언어는 위의 도표에서 점선으로 표현된 것처럼 하나의 A도, 하나의 B도 아닌 바탕에 잠재되어 있는 언어이다. 이 언어는 번역적 세미오시스라고 할 수 있는 A도 아니고 B도 아니라는 이중부정의 형식을 통해 비로소 바탕에서 표면으로 부상하게 된다. 바로 이 불가능의 장소에서 새로운 번역의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들뢰즈는 『차이와 반복』에서 이러한 현상을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두 사물 사이의 ‘차이’는 단지 경험적인 차이에 불과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통의 규정들은 외생적 규정들에 불과하다. 그러나 다른 사물과 구별되는 사물대신 이런 사물을 상상해보자. 이 사물은 자신을 어떤 사물과 구별하려고 하는데, 그 어떤 사물은 자신을 이 사물과 구별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번개는 검은 하늘로부터 떨어져 나오려 하지만, 결국 그 하늘을 같이 끌고 가야만 한다. 이는 마치 떨어지지 않으려는 것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려는 것 같다. 말하자면 바탕이 바탕이기를 그치지 않으면서 표면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이다.(2004:86)

번역공간은 역량으로서의 바탕언어가 “바탕이 바탕이기를 그치지 않으면서

표면으로 올라오듯” 표면으로 부상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어쩌면 벤야민이 말한 순수언어 또는 진리의 언어는 바탕언어에 해당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만약 모든 사유가 추구하는 궁극적 비밀을 아무런 긴장 없이 또 은밀하게 담고 있는 진리의 언어가 있다면, 이러한 언어야말로 진정한 언어인 것이다. 번역 속에는 바로 이러한 언어-철학자가 기대해 마지않는 유일한 완벽성이 있다면, 그것은 이러한 언어를 예견하고 또 기술하는 데 있을 것이다-가 집약적으로 숨겨져 있다.(Benjamin, 1971: 270)

번역 속에 숨겨진, 달리 말해 번역공간 속에서만 드러나는 언어, 진리의 언어는 그동안 바탕에 감추어진 바탕언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번역적 세미오시스는 모든 세미오시스를 중단시키면서 이 언어를 드러내야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 바로 여기에 새로운 세미오시스의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상환 옮김 (2004) 『차이와 반복』, 서울: 민음사.
김운찬 옮김 (2010) 『번역한다는 것』, 열린책들.
백종현 옮김 (2009) 『판단력 비판』, 서울: 아카넷.
윤성우, 이향 옮김 (2011) 『번역과 문자: 먼 곳의 거처』, 서울: 철학과 현실사.
(Antoine Berman).
정희성 옮김 (2007) 『1984』, 서울: 민음사.
주형일 옮김 (2008) 『미학 안의 불편함』, 일산: 인간사랑.
진태원 옮김 (2004) 『법의 힘』, 서울: 문학과 지성사.
Benjamin W. (1972) La tâche du traducteur, *Oeuvre I*, Paris: Gallimard.
244-262.
Greimas A.J. & Fontanille J. (1991) *Sémiotique des passions*. Paris: Seuil.
Lotman Y. (1999) *La sémiosphère*, Limoges: PULIM.
Nouss A. (1996) Dans la ruine de Babel: poésie et traduction chez Paul Celan.
TTR, 9, 15-54.

- Racine J. (1999) *Phèdre et Hippolyte. Oeuvres complètes*, Paris: Gallimard.
- Shin J. & Choi Y. (2011) La traduction comme trans-sémiosis: un essai de sémiotique pour une typologie de la traduction. *KODIKAS/CODE Ars Semiotica*, 34. No 1-2, Tübingen: Gunter Narr Verlag, 27-40.
- Swift J. (1986) *Gulliver's Travel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Tymoczko M. (2003). Ideology and the Position of the Translator: In What Sense is a Translator "In Between?", *Apropos of Ideology. Translation Studies on Ideology-Ideologies in Translation Studies*, Manchester: St. Jerome. 181-201.

[Abstract]

The universal language and translative space

Shin, Junga & Choi, Yong Ho.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study proposes a concept of translative space, according to which we would like to reexamine the validity of the notion of universal language in Translation Studies. Our working hypothesis is that universal language is a background-language against which this or that figure-language takes form and shape. By translative space, we mean especially three things: border space, indeterminate space and potential space. Border space is a space opening up while translating from one language into another. From a semantic point of view, this space remains indeterminate until a decision has been taken. In other words, this space is full of potentialities, from which follows the conclusion that a retranslation is always possible. Our main idea is that the universal-particular dialectic which determines the debate on the possibility of universal language is to be reformulated in terms of background-figure dialectic. From this perspective, we attempt to translate the concept of pure language by Benjamin in terms of background-language.

▶ Key Words: Universal Language, Translative Space, Border, Indetermination, Potential

신정아

한국외국어대학교 어문대학 프랑스어과 부교수

claireshin@hufs.ac.kr

관심분야: 프랑스 및 퀘벡 문학, 번역사, 번역기호학

최용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어문대학 프랑스어과 교수

yhchoi@hufs.ac.kr

관심분야: 기호학, 문화학, 번역기호학

논문투고일: 2012년 7월 3일

심사완료일: 2012년 8월 30일

게재확정일: 2012년 9월 18일